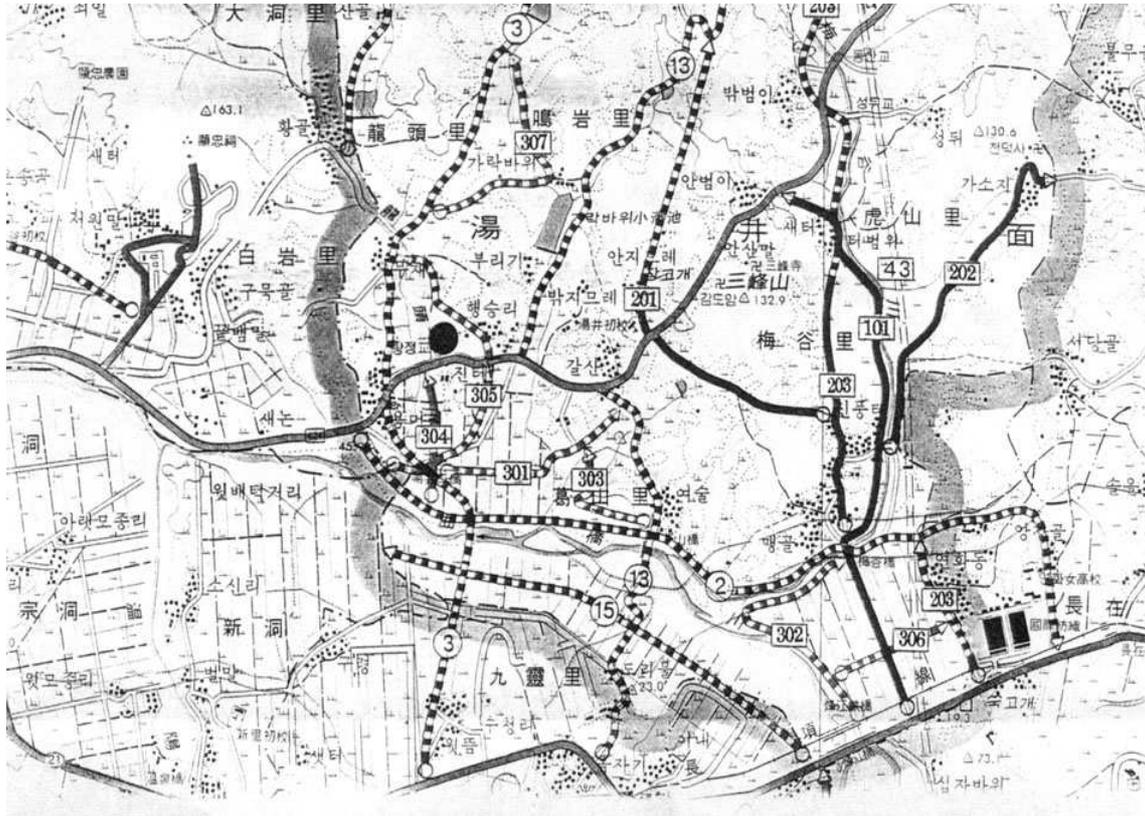


## 갈산리·葛山里

탕정면의 한마을로 하나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흔히 갈미라고도 하며 작게는 갈미를 비롯해 안지뜨레, 여술의 세마을로 나뉜다. 갈산리의 총인구는 929명이며, 233가구에 이른다. 본래 갈산리는 온양군 일부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여사리, 내금리를 병합하여 갈산리라 하여 아산군 탕정면에 편입되었다.

<갈산리 위치도>



### ☒ 갈미, 여술마을

갈산 1리는 갈산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뒷산에 첩이 많다고 하여 갈미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옛날 지관들이 산지형이 첩넝쿨 형국이라고 해서 갈산리라 부르기도 하였다.

갈산 2리는 지뜨레 남쪽들가에 있는 마을로 한내의 물이 맑으므로 여수라 하던 것이 변하여 여술 또는 여사라 불리어진다.

<조사당시 갈산리 마을 관련 지도>



1) 위치

탕정면 명암리를 지나오다보면 선문 대학교가 보이는데 그 일대가 갈산리 1구이다. 마을에는 선문대학교 뿐만 아니라 탕정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으며 대학교가 있어 그 주위에는 상가들과 빌라 여관등이 여러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갈산리 1구에서 오른편의 길로 1km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마을이 갈산리 2구 여술이다. 산길을 따라 들어가 산기슭에 위치하리라 생각했는데, 마을은 앞이 훤히 트인 마을이었다. 갈산리 1구로 해서 들어온 길은 마을의 뒷길이였고 입구는 모산으로 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다. 갈산리 2구는 입구에 돌공장이 있는데 그곳까지가 탕정면이고 그 너머가 배방면에 속해 있다.

2) 현황

갈산 1리인 갈미의 인구는 남자 203명, 여자 201명으로 총 404명이다. 146가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은 38%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갈산 2리인 여술마을은 남자 156명, 여자 132명으로 총 288명이며 87가구가 살고 있으며 5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타마을보다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적은 것은 근교에 대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어 상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 인구분포

구 분 마을명	계	남	여
갈미마을	404명	203명	201명
여술마을	288명	156명	132명

- 생업

구 분	계	농업	기타

마을명			
갈미마을	100%	38%	62%
여술마을	100%	53%	47%

갈미마을과 여술마을은 논이 96ha이고 밭이 46ha로 농경지 면적이 총 142ha이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논	밭
갈미마을	75ha	47ha	28ha
여술마을	67ha	49ha	18ha

- 농기계 보유 현황

구 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분무기
갈미마을	29대	6대	20대	5대	4대	9대
여술마을	36대	11대	22대	2대	5대	22대

- 문화시설

구 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프	문고	사물놀이 악기
갈미마을	1개소	1대		1조
여술마을	1개소	1대		1조

- 연령별 분포

구 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세이상
갈미마을	44명	64명	45명	64명	66명	54명	50명	12명	5명
여술마을	35명	46명	32명	42명	48명	30명	45명	8명	4명

- 성씨별 분포

구 분 마을명	김씨	이씨	박씨	기타
갈미마을	26%	13%	9%	52%
여술마을	21%	11%	7%	61%

- 학생분포

구 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갈미마을	2명	4명	3명	3명
여술마을	10명	7명	6명	3명

- 최고령자

1리 갈미마을 윤태권 할아버지로 80세이시고, 여술마을은 조봉희 할머니로 96세이시다.

- 호당평균 소득

1리 갈미마을은 년/1,000만원, 2리 여술마을은 년/1,000만원

3) 자연경관

갈산 1리인 갈미는 선문대학교가 장재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옥은 624도로 왼편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에 들어서면 처음으로 눈에 띄는것이 긴 다리와 2층으로 깔끔하게 지어놓은 마을회관, 그리고 오래 된듯한 팽나무가 있다. 여술은 여사리라고도 부르며 마을의 삼면이 산으로 둘러져 있다. 옛부터 산천이 풍요롭고 토지가 비옥하여 부유한 마을이며 한때 장수하는 노인이 많아서 장수마을이라 불리우기도 했다.

4) 마을변천과정

본래 온양군 일북면의 지역으로서 갈미 또는 갈산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여사리, 내금리를 병합하여 갈산리라 하여 아산군 탕정면에 편입됨. 탕정초등학교가 있으며, 물이 맑다하여 여수>여술>여사리가 되었으며 본래 온양군 일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지금의 탕정면에 편입되었다.

5) 입향

갈미 마을에 터를 잡은 성씨는 인동 장씨와 동네 정씨, 그리고 소작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 무렵에 들어온 전의 이씨, 안지므레에 살았던 고성 이씨가 처음 살았다고 한다. 실제적인 원거인은 아마도 인동 장씨일것이라 한다. 그리고 한때 인동 장씨가 세력을 잡고 있었는데, 현재는 모두 떠나고 없다. 동네 정씨는 이곳에서 5대째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150년이 조금 넘었다. 여술 마을의 시작은 김해 김씨로 알고 있으며 현재는 김해 김씨가 모두 떠나고 한 집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들어온 성씨가 전의 이씨이며, 그 후로 천안 전씨가 6대째 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의 이씨는 지금 한 집도 살고있지 않다고 한다.

6) 지명

갈미(갈산리) : 갈산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뒷산에 첩이 많았다고 한다.

안지므레 : 지므레 안쪽에 있는 마을

여 술 : 지므레 남쪽 들 가에 있는 마을 한 내의 물이 맑음으로 여수라 하던 것이 변하여 여술또는 여사리라 한다.

지므레 : 갈산리와 명암리 경계에 있는 마을. 두 마을이 있는데 안지므레는 갈산리에, 바깥지므레는 명암리에 갈려 있음. 옛날 김씨가 많이 살면서 열녀 효부가 많이 났으므로 김호례(金好禮)라 하던 것이 변하여 지므레가 되었다함.

산제단 : 여술 뒷산에 위치한 산으로 옛부터 음력 정월 14일 날이면 동리의 안녕을 비는 산제당이 있어 지금까지 행하여 지고 있음.

조 산 : 마을 뒤에 있는 산으로 조씨들의 조상이 묻혀 있어 조산이라 불리고 있다.

장재울골 : 마을 서편 서낭당을 넘어서 있는 골 옛날에 큰 부자 즉 장자가 살았다해 붙여진 이름.

큰여술골 : 마을 동편 어귀를 돌면 나오는 골 옛날엔 그곳에도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서낭당 골 : 마을 서편 작은 고개에 서낭나무가 있었다하여 붙여진 이름.

내건너들 : 갈미 앞에 있는 너른 들. 곡교천변의 큰 평야지를 말함.

진돗병 : 여술 앞에 있는 돗병. 현재 현재 경지 정리가 되어 논으로 변화였음.

선문대 : 1993년도 3월에 천안에서 공대 및 자연대가 이주하여 성화대학이라 명하였는데 94년도에 선문대로 개명하였으며 면적이 46만평에 이른다.

7) 전설

- 지므레 -

김안서라는 선비는 홀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양반이면서도 집이 넉넉하지 못하여 가난한 집안의 처녀를 아내로 맞았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어찌나 극성스러운지 며느리를 자기의 외아들을 빼앗아간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학대하였다. 마침내는 남편과 각방을 쓰게 했으며 과거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남편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트집을 잡아 꾸중을 일삼았으며 숨돌릴 틈도 없이 일을 해야 했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가

밧기보다 몹시 서운했다. 그래서 건디다 못해 뒷산마루에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신령에게 빌기 시작했다. 그런 어느날 밧기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하얀 수염의 할아버지가 나타나 하는 말씀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일년내내 시어머니와 따로 떨어져 살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귀가 솔깃해 진 며느리는 방법을 물었다. 그 방법이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에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주는 이 가루를 넣어 주기를 일년을 하면 시어머니는 돌아가실 것이라 했다. 너무도 엄청난 사실에 가슴이 뜨끔했지만 더이상 시어머니의 학대를 받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수정과에 그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가루를 섞어 하루에 한 번씩 정성으로 드렸다. 처음에는 미움계만 보던 시어머니는 날이 가면서 며느리의 정성에 감복하여 며느리를 사랑하게 되었고 날로 건강해지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자기의 거짓 정성으로 인자한 시어머니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할아버지를 찾아가 시어머니를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슬며시 미소를 띄운 할아버지는 사실은 그 가루가 산삼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 했다. 며느리의 놀라움과 기쁨은 너무도 커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정말로 잘 모시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즈음에 과거에 합격하여 돌아온 남편은 고부간의 사이가 좋아진것을 기뻐하고 시어머니는 항상 며느리를 위하는 마음을 가져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 한다. 그래서 며느리가 할아버지를 만났던 그 자리에는 (갈산리와 명암리 경계) 바위가 생겼는데 그 바위의 정기로 또 그 며느리의 행실을 본받아 열녀 효부가 많이 났으므로 김호례(金好례)라 하던 것이 "지므례"라 불렀다 한다.

- 장재울 -

장재울은 원래 장자물이라 불리우는데, 현재 선문 대학교가 있는 자리로써 옛날 선문 대학교가 생기기전 지형을 보는 지관들이 이 자리는 큰 장자가 울을 틀것이라 했는데, 그 장자가 지금 학교를 세운 문선명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이전부터 이곳은 장재울이라 불리운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 안지므례(내금리)-

안지므례는 왜정때 내금리로 불리웠으며, 왜정때 일본인들이 이곳에 금광이 있을것이라하여 이곳을 파 보았지만, 금은 전혀 나오지 않아 헛수고만 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있다.

####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갈미는 산제사와 거리제가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는 데 산제사는 음력 정월 열 나흘에 지내고 있다. 그러나 옛날에는 10월에 지냈다고 하며 산제사를 지낸후 새벽녘에 정제사와 거리제, 또한 농토제를 지내고 아침이 되면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다음해의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농토제는 지내지 않고 있다. 한편 정제사는 마을 중간에 위치한 우물에서 지내고 거리제는 마을입구 도로에서 지낸다. 또한 마을에는 성황당이 있었는데 그곳을 효성 그룹에서 터를 닦기 위해 없앴다고 한다. 왜정때는 보름에 주대를 들었는데 주대라는 것은 가래에 걸어 사용하는 짚으로 만든 줄과 농기구 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주대를 들인 후에는 줄다리기 줄을 만들어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누어 줄다리를 하였으나 해방후에는 없어졌다. 또한 갈산리 1구와 갈산리 2구(갈미와 여술)는 풍장싸움을 했는데 요령은 서로 풍악을 울리며 깃대를 흔들며 와서 한판 신나게 풍악을 울린 후 마지막에 깃대끼리 싸움을 해서 깃대가 쓰러지지 않고 많이 남아 있는 마을이 이기는 놀이이다.

여술마을에는 성황제는 성황나무가 죽어서 지내지 않고 있으며 지금은 산신제와 거리제, 유허제를 지내고 있었다. 산신제는 음력 정월 열 나흘에 지내며 산신제를 지내려면 생기복덕을 가려서 닿는 사람을 골라 사흘동안 부정을 안해야 한다. 산신제를 지내기 이해서는 반드시 산신제에 쓰는 샘부터 깨끗이 청소하였으며 제사는 고사봉이라는 마을의 산에서 지내고 있다고 한다. 옛날에는 소를 잡았으나 현재는 돼지머리와 떡을 놓고 지낸다고 한다. 산신제를 지내고 내려와서는 거리제를 지내고 이어서 유허제를 지내게 된다고 한다. 거리제는 마을 앞 사거리에서 지내는데 무 사고를 기원하는 것이며 유허제는 옛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식용으로 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지금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지만 제사전에 깨끗이 청소를 하고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이밖에 한식날이면 꼭 제사를 지내주는 곳이 있다고 한다. 그연유를 보면 옛날 마을에 사는 안씨, 엄씨, 한씨가 아들이 없어서 땅을 마을에 내놓았고 그때부터 마을사람들은 한식날이면 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 지가 100여년이 되었다고 한다.

#### 9) 특별하게 소개 할 만한 인물

이준열 독립투사로 일제시대때 개혁파로 독립운동을 하며 활동사진을 가지고 다니며 상영을 하였다. 그러나 대전감옥에 갇혀 10년을 살다 석방되어 나오면서 독립만세를 불러 다시 잡혀갔다고 한다.

#### 10) 종교단체

갈산 감리교회 탕정면 갈산 2리 149-3번지 (전도사 : 오동규, 종파 : 감리교)

#### 11) 공장현황

우인화학(주) 대표 : 이재건 갈산 산46번지/59-1외 생산품목 : 액화염소, 육조, 세면대

효성드라이비트(주) 대표 : 홍성범 생산품목 : 경량복합판넬

#### 12) 마을의 특성

이 마을에도 주위에 불리고 있는 지명들이 많았는데 옛날에 마을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모여 지역을 구분하는데 용두리와 명암리, 갈산리 마을에서 용두리와 명암리는 산을 위주로 선택을 하고, 갈산리에서는 들판을 선택하여 지역구분상 들판이 많다. 불리고 있는 지명들을 들자면 셋별은 명암리와 갈산리 경계부분에 넓게 자리하고 있는 곳이 셋별이고, 고사골은 맹골로 넘어가는 곳이며, 잣골은 우인화학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옷골은 안지르레에 있으며, 아낙골은 현재 초등학교 과수원 밑에 길다랗게 있는 밭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 방축돌은 갈산리 2구로 넘어가기 전 개울가 있는곳을 칭하는데 아마도 비가오면 항상 넘쳐 그곳을 막고 있다해서 방축돌이라 불리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썩은 셋개울도 있고, 그 너머에는 갈산리 2구로 넘어가는 고개를 스승미 고개라 부르고 있다. 장고개는 우인 화학을 넘어가는 고개가 있는데 옛날에 그 고개로 장을 보러 다녔던 고개라해서 장고개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도 계속 문화복지 시설이 세워지기 위해 추진중에 있다니 장차 갈산리가 아산시의 문화권 도시로 발전하리라 본다. 마을에서 또 특이한 것은 계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는데, 계를 운영하면 마을 사람들끼리 의가 상한다해서 폐지 시켰다고 한다.

여술마을은 여인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여 여술이라 불리웠으며 또 다른 하나는 여자가 오래 산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마을이 형성된지는 300여년이 넘으며 마을입구에는 팽나무가 있는데, 300년이 훨씬 넘었다고 한다. 팽나무에 팔알만한 열매가 열리는데 그 맛이 무척이나 달콤해서 따 먹기도 하며, 풍년과 흉년을 알 수 있는데 위부터 피면 높은 논에서부터 모내기를 하고, 밑에서부터 피면 낮은 곳에서부터 모내기를 하곤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잎이 팔고루 퍼서인지 풍작이라고 한다. 마을에는 성씨가 각 성들이 살고 있어 동성이 4가구 이상 살지 않고, 마을사람들의 단합이 잘되며, 새마을 사업때는 정부 지원을 안받고 인력으로 마을 입구에 있는 긴 다리를 놓았다고 한다. 마을에는 장채울골과 큰여술골이 있는데 큰여술은 맹골과 경계선이며, 맹골에서는 이 산을 온정골이라 부르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이곳에서 더운물이 나온다는데 지금까지 정확한 조사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큰여술골은 큰사람이 나온다고해서 큰여술골로 부른다고 한다. 내건너들과 진뚝병이 있는데 내건너들은 다리 건너편에 있는 들을 부르는 명칭이며, 진뚝병은 그곳에 있는 물을 품어 농사를 지어 먹을만큼 깊다해서 진뚝병이라 불리우고 있다고 한다.